



2017년 세계수의사대회 한국서 열린다 - 수의사들 세계대회 유치 트리플 위업 달성

**+** 남아공서 태국과 개최지 경합... 102대 57로 압승  
한국 수의학 수준 업그레이드 기회... 최고대회 다짐



▲ 대한민국 유치단이 세계수의사대회 유치에 성공한 후, 이번에 세계수의사회장에 당선된 튀니지 출신 Faouzi Kechrid 박사(왼쪽)와 기념촬영을 했다.

대한민국 수의사들이 또 해냈다. ‘세계수의사대회(WVC, World Veterinary Congress)’ 개최지가 우리나라 품안으로 들어왔다.

세계수의사대회 대한민국 유치단(단장 허주형)은 지난 13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 30차 세계수의사대회에서 2017년 개최지를 두고 태국과 열띤 경합을 벌인 끝에, 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2011년 세계소동물수의사대회(WSAVA), 2012년 세계양돈수의사대회(IPVS)에 이어, 대한민국 수의사들이 일궈낸 커다란 쾌거다. 투표결과는 대한민국 102표, 태국 57표.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다.

우리나라 수의사들은 각국 수의사회장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효과적인 투표전략을 짜냈다. 아울러 각종 수의사대회 유치경험자들은 홍보물, 프리젠테이션 등에서 세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남아공 투표 현지에서는 치안, 교통, 관광, 정부지원 등 차별화 무기를 집중 부각시켰다. 특히 5명 유치단원이 부스도 없이 혈혈단신 참가해 거둔 성적표이어서 깊은 감동을 준다.

허주형 유치단장은 “초반, 태국에 밀릴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끝까지 해본다’라는 한국



특유의 뚝심으로 밀어부쳤다. 결국, 그 의지가 표심을 사로잡았다”고 말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최신 학술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역대 최고 세계수의사대회 개최를 다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 수의학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리고, 한국 수의학 수준을 한단계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영길기자(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2011년 10월 19일

## 가축전염병 신속대응 능력 강화 중점

###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구제역 가상훈련 실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19일 가축전염병 신속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구제역 가상훈련(FMD-CPX)을 실시한다. 이번 가상훈련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한 위기단계별 모의훈련으로 구제역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검역검사본부의 신속한 상황전파, 정밀검사, 역학조사 등 위기대응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KAHIS는 IT 기술을 활용해 초동방역 서비스 체계 구축, 통합방역 관리체계 확립 등을 목표로 검역검사본부에서 개발 중인 지자체 등 방역관련 기관과 연계된 가축방역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의심축 신고 등 상황전파가 팩스 등을 통해 이뤄졌으나 KAHIS 시스템을 통해 상황전파 시 전국 방역관계자는 SMS수신 등 시스템 내에서 신속한 정보공유가 이뤄져 즉시 방역조치가 가능해지게 됐다.

훈련에는 검역검사본부 내 구제역 담당과(위기대응센터·질병관리과·역학조사과·구제역진단과)와 지자체 방역기관인 충청남도, 홍성군 등이 참여한다.

주요 훈련내용을 살펴보면 KAHIS를 통한 의심축 신고·접수·정밀검사·역학조사·방역조치 훈련, 현장 임상검사·시료채취반 훈련 등을 위기단계별로 실시한다. 이와 관련 지자체에서는 충청남도와 홍성군이 참여하며, 충남 홍성군 소재 돼지사육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는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해 KAHIS를 통한 상황전파 등을 할 예정이다. 협조기관으로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참여해 초동 대응 훈련 시 가상 발생농장 소독·이동제한 등을 담당하게 된다. 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이번 훈련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개선사항을 도출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완기자(wan@chukkyung.co.kr)  
축산경제신문/2011년 10월 14일



**박용호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장**

**“3개 기관 통합 취지 최대한 살려 시너지효과 극대화 할 터”**



박용호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장은 지난 12일 “초대 본부장으로서는 검역 검사본부의 기틀을 다잡고 동시에 통합 취지를 달성하고 기관의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 두 달을 맞은 박 본부장은 이날 농축수산물 전문 언론사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조직운영, 추진사업의 선택과 집중, 소통과 화합을 실천하는 등 기존 공무원기관의 이미지를 탈피하도록 패러다임을 전환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본부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으며 통합 출범을 통해 이제는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며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대외적으로 위상을 높이는데 모든 힘과 열정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간담회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엮은 것이다.

- 초대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장으로서의 소감과 앞으로의 각오는.

▲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어깨가 더욱 무겁다. 통합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꿔 나가겠다. 내년부터는 국정감사를 검역검사본부가 개별적으로 받겠다고 신청을 했다. 그만큼 우리 기관이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는 높다.

우연일지 몰라도 미국 농무부 산하 동식물방역청도 지난 5월 동물질병 분야 학자를 청장에 임명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해 쇠고기·종돈 수입, 동물질병 관련 공조 등 다양한 업무가 얽혀 있는데 각 기관의 수장으로서 전문가끼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의 구성과 설립목적 등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다면.

▲ 지난 6월 15일 농축수산물 검역·검사 기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이 통합해 출범한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는 5부, 29개과, 6개 지역검역검사소 및 30개 사무소로 구성돼 있으며 총 1335명(비정규직 포함 2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번 조직 통합 시 위기대응센터와 구제역진단과가 신설됐으며 서울, 용인, 천안, 전주, 대구 등 5개 지역에 가축질병방역센터를 두고 있다.



조직이 통·폐합되면 일반적으로 인원이 줄어들지만 검역검사본부는 오히려 인원이 증원됐다. 이는 검역검사본부의 역할과 기능이 막중하다는 반증으로서 검역검사본부가 거대조직으로 거듭나게 된 동기는 규제역 파동을 계기로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각 기관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함이다. 통합 출범을 통해 규제역·HPAI 등 국가재난형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농축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역·검사로 해외 질병 유입을 방지하고 '농장·어장에서 식탁까지' 국민이 신뢰하고 소비할 수 있는 안전한 농축수산식품의 공급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 출범 초기라는 혼란과 어려움이라는 난제를 기관초석으로 삼기위해 어떤 노력을 경주하실 계획인가.  
 ▲ 통합 출범 이후 조직의 업무가 방대해짐에 따라 국가 방역에 절실한 것 외에는 아웃소싱 형태의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도 R&D 예산을 올해보다 13% 정도 증가한 600억원 가량을 확보한 상태다.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약간의 혼란과 시행착오는 분명 있을 수 있다. 검역검사본부의 핵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먼저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닌 시너지 효과라는 화학작용을 불러일으키는 통합이 되기 위해서 부서 간 소통과 함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지혜를 모으고 노력해 나갈 것이다. 신설 조직은 주위의 기대를 받는 만큼 하루 빨리 정체성을 확립하고 맡은 바 업무 전반에 걸쳐 제자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직원들에게 과거보다는 미래, 개인과 조직보다는 국민과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공직자로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달라는 당부 자주 드린다.

직원들의 조화를 바탕으로 업무상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각 부서가 추진해왔던 사업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창의적인 사고로 찾아서 노력하는 직원들이 대우받는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비전은.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비전은 '국민이 신뢰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검역검사본부'이다. 세계화하는 농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과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만으로는 완수되지 않는다. 현장 중심의 합리적인 행정, 창의적인 마인드와 우수한 연구능력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검역검사본부의 초석을 닦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미력하나마 본부장으로서 모든 능력을 다하고 산업체와 학계, 소비자, 생산자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직원들과 함께 공조해 나간다면 충분히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조직 구성원들과 국민들에게 전하고자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 검역검사본부의 시대적 소명은 가축과 물고기를 비롯한 동물과 각종 식물의 질병 방역 및 위생관리와 이를 소비하는 국민의 공중보건 확보, 국가 재난형 동식물 질병과 인수공통전염병 관리가 주된 임무다. 안으로는 이 목표를 위해 우리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키고 밖으로는 외국으로부터 새로운 위협이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검역·검사 단계에서 이를 철저히 원천봉쇄해 나가겠다. 과학적으로 분석한 먹을거리에 대한 평가나 결과를 정부가 국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믿음을 줘야 하는데 아직 국민이 이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있다. 과학적·기술적으로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어도 국민이 안심하기 위해서는 과학을 뛰어넘은 신뢰가 확보돼야 한다. 국민이 안심하고 농축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소통을 통해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

박정완기자(wan@chukkyung.co.kr)  
축산경제신문/2011년 10월 14일

 **정부·민간단체 협력 국경검역 강화**

**+ 검역검사본부·국외여행인솔자협회, MOU 체결**



▲ 박용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사진 오른쪽)과 송동근 한국국외여행인솔자협회장이 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와 (사)한국국외여행인솔자협회(회장 송동근)는 지난달 30일 검역검사본부 동물위생연구동 3층 대회의실에서 국경검역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경검역 홍보 및 교육에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검역검사본부는 국외여행인솔자를 대상으로 국경검역 홍보 및 교육, 해외 질병 발생 정보 등을 제공하고 한국국외여행인솔자협회는 해외여행자들이 국내반입이 금지된 각종 농축수산물을 국내에 들여오지 못하도록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 및 현지 방역지도 등 역할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항만에서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휴대 검역물 반입금지 등 홍보를 실시해 왔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국외여행인솔자 교육 프로그램에 국경검역 내용을 반영하고 국외여행인솔자들이 국경검역 홍보요원으로 활동함으로써 해외 전염병 국내유입을 막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검역검사본부는 지난 6월 3개 검역기관(동물, 식물, 수산물) 통합으로 각 기관별로 실시해오던 국경검역 교육·홍보를 통합해 실시하게 됨으로써 기관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한국국외여행인솔자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법인으로서 국외여행인솔자에 관한 제도개선, 정책개발, 학술연구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국외여행인솔자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자격증을 취득해 10인 이상 단체 해외여행 시 출발부터 국내도착까지 모든 여행 일정을 관리하며 현재 2만 50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박정완기자(wan@chukkyung.co.kr)  
축산경제신문/2011년 10월 7일

 **한국동물약품협회, 제1차 자문위원회 개최**

**+ FTA가 닭고기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한국동물약품협회가 지난 18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1차 자문위원회(사진)를 열고 동물약품업계의 발전을 위해 각계인사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자문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는 이문한 서울대 명예교수가 선출됐으며, 박종명·이주호 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등 수의업계 인사를 비롯해 김천주 대한주부클럽연합회장, 서정희 한국 소비

생활연구원 이사,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재용 한국종축개량협회장, 장동환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 각계각층의 인사가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강석진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은 “동물약품업계의 외연확대를 넘어 국내 동약산업이 국민을 위한 진정한 발전의 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자문위원단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안희경기자(nirvana@afnews.co.kr)  
농수축산신문/2011년 10월 19일



### 동물약품기술연구원, 동물용의약품 등 검사기관 지정

한국동물약품협회 부설 한국동물약품기술연구원(원장 곽형근)이 지난 13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최초로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

검사항목은 화학시험 17종과 미생물시험 2종으로 한국동물약품기술연구원은 앞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검사업무처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검사기능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곽형근 원장은 “국내 제1호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의 위상에 걸맞게 공정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통해 동물용의약품등 검사기관으로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동물약품기술연구원은 지난 4월 조달청으로부터 조달물품 중 살충제, 살균제에 대한 전문기관 납품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은 바 있다.

안희경기자(nirvana@aflnews.co.kr)  
농수축산신문/2011년 10월 19일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가축방역기관 BSE진단능력 평가 '우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는 지난 13~14일 양일간 전국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검사요원을 대상으로 소해면상뇌증(BSE) 진단기술력 강화를 위한 훈련평가를 실시한 결과 가축방역기관의 BSE 진단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훈련은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BSE 검사결과의 공신력을 확보키 위해 마련된 것으로 BSE 진단기술 훈련은 검역검사본부 해외전염병과 BSE 차폐실험실에서 실시됐으며, 검사시료 채취요령 등 현장에서 수행되는 BSE 검사기술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이날 시료를 이용한 평가에서 모든 검사요원은 일치된 BSE 검사결과를 나타내 국내 가축방역기관의 BSE 진단능력이 표준화되고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조인수 검역검사본부 해외전염병과장은 “매년 이러한 훈련 및 평가를 바탕으로 검사능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5월 우리나라가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BSE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며 “지속적으로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BSE 검사결과의 국제적인 공신력을 확보토록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BSE 검사를 실시한 1996년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10만8000마리의 소를 대상으로 BSE검사를 실시했으나 BSE 감염사례는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안희경기자(nirvana@aflnews.co.kr)  
농수축산신문/2011년 10월 19일



**2011세계소동물 수의사회 세계대회 '성료'**

2011 세계소동물수의사대회 세계대회(WSAVA)가 지난 17일 성료됐다.

14일부터 제주국제컨벤션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55개국에서 5000여명 이상의 수의사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세계 소동물 수의전문가들의 눈과 귀를 제주도로 모은 이번 행사의 이모저모를 알아본다.



**▲ 52년 역사 중 아시아 4번째 개최**

이번 2011 WSAVA는 52년 대회 역사 중 36번째 열리는 행사로 특히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4번째로 대회를 개최하는 영광을 안았다.

세계소동물수의사회는 현재 76개 회원국에 약 7만5000명의 수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로 WSAVA는 매년 세계 각 대륙을 순회하며 임상 반려동물수의학을 중심으로한 다양한 주제로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최고의 연사를 초빙해 여는 학술대회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FASAVA(아시아 소동물수의사회, 2007년 설립) 대회도 동시에 개최돼 아시아 지역 수의사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았다.

오정규 농림수산물식품부 제2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이 회의에서 세계적인 수의학 분야의 석학들과 전문적인 학술연구가 이뤄져 수의학의 발전 뿐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의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며 “아시아를 넘어 세계에 국내 수의학분야의 높은 수준과 함께 제주도와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오 차관은 이어 “농식품부가 이전부터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왔다”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국내 수의학계가 한층 발전하길 기대하는 동시에 앞으로 국제 기준에 맞는 동물 질병 예방과 복지, 수의학 발전을 위해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수의학 관련 행사 중 최대규모**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이어진 이번 행사는 수의학 관련 국제 행사



중 가장 큰 규모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55개국에서 5000여명의 수의사가 참가했다. 특히 100여명의 세계 최고 권위의 강사들이 초청돼 250개의 강의가 진행됐다. 주목할 점은 250개의 강의를 총 35개 전문분야로 나눠 보다 전문적인 학술대회가 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한 주제의 계열 강의를 같은 날 연이어 진행하면서 주제를 보다 심층적이고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타이완 출신의 수의사인 그레이스 쉑 씨는 “분야별로 나뉘져 있는 세미나 덕분에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심층접근이 가능했다”고 답했다.

이어진 이벤트들도 규모면에서 좌중을 압도할 만 했다. 첫날 개회식에는 수천명의 수의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농식품부 장관 주재의 환영만찬을 즐겼으며 이튿날에는 제주도지사 주최의 ‘한국의 밤’, 3일째는 갈라디너와 대한수의사회장 주최 대한민국수의사대회가 진행되는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 참석자들을 즐겁게 했다.

강종일 2011 WSAVA 조직위원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세계수의사들이 제주에 모여 최신 수의학술 정보를 교환하는 동시에 우정을 나누고 각종 환상적인 이벤트를 경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마련되길 원했다”며 “참석자들은 고품격 학술대회의 프로그램에 놀라고 즐거운 이벤트에 놀라는 일석이조의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더불어 제주의 아름다움까지 가져가는 종합선물세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개최 소감을 전했다.

안희경기자(nirvana@afnews.co.kr)  
농수축산신문/2011년 10월 19일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유기동물실무 워크숍 개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건국대학교 교육연수원에서 유기동물 보호 실무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 및 보호센터 종사자 등 약 200명을 대상으로 영국 왕립동물보호 협회(RSPCA) 전문가 3인을 초청해 실시하게 된다.

특히 지난 8월 4일 동물보호법이 전면개정됨에 따라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역할 및 운영위원회 설치 등 업무 확대에 인한 동물보호센터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 동물보호 담당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동물복지이론 및 유기동물보호센터 역할, 개정 동물보호법 개요 및 유기동물보



호센터 운영기준 등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이 실시된다.

또한 교육생들은 경기 양주시 소재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를 방문해 RSPCA 전문가들로부터 유기동물 포획요령, 적절한 동물관리 등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유기동물 보호력률 과정 등에 대해 실무 교육 및 체험학습이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 마지막날에는 분임별로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와 함께 충분한 토론시간을 가진다.

안희경기자(nirvana@aflnews.co.kr)  
농수축산신문/2011년 10월 17일



### 〈인터뷰〉 취임 2개월 박용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박용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취임한지 두달이 흘렀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지난 6월 15일 통합본부로 출범한 이후 8월 18일 박 본부장이 취임을 했으니 본부장 없었던 두달과 초대 본부장 취임 후 두달, 이렇게 네달을 보냈다.

민간출신 초대 본부장, 3개 기관 통합 본부장, 전문가 출신 본부장. 많은 수식어가 붙는 박 본부장을 지난 12일 경기도 안양의 본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만났다.

국민이 신뢰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검역검사본부,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에 대해 들어봤다.

Q. 축산수의분야의 전문가가 3개 통합기관을 맡아 걱정도 많고 기대도 많다. 앞으로 어떤 통합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A.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통합 후 모토는 ‘시너지와 하모니’다. 통합 후 두달만에 본부장으로 부임했는데 두달 동안 3개 분야의 교류가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라도 무조건 만나고 부딪치자는 생각으로 매주 토요일 직원들과 함께 산행을 시작했다. 우리의 모토는 움직이는 검역검사본부다. 현장에 가고 민원인을 만나고 몸으로 부딪치겠다. 내가 수의축산분야의 전문가라 걱정하는 시선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그 부분이 나로 하여금 수산과 식물에 더욱 큰 열의를 가지도록 한다. 우리는 움직이는 기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최상의 하모니를 통해 최고의 시너지를 낼 것이다.

Q. 축산식품 내 이물문제, 수입 멜론의 리스테리아 검출 등 식약청과 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부분에 대한 해결과 앞으로의 과제는?

A. 결론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겠다는 것이다. 수입 멜론의 리스테리아 균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식약청장과 직접 통화를 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소통과 대처를 부탁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내가 먹는 멜론에 리스테리아 균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지 수입 멜론 검역은 누가 했는지 중금속 검사하는 누가 했는지 중요하겠는가. 중요한 것은 소비자다. 어느 기관의 소관인지는 중요치 않다. 본부든 청이든 규제든 법률이든 받아들이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겠다. 앞으로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는 어떤 부처와도 어떤 기관과도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소통할 것이다.

Q. 질병 발생, 검역검사 문제 등 검역검사본부에는 산재한 문제가 많다.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A. AI 위기 대응센터가 새로 생겼다. 미국에도 똑같은 기구가 있다. 미국에서는 대비대응센터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그냥 대응센터라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했다. 앞으로의 방향은 여기서 출발한다. 단순히 이름이 바뀐다고 생각하겠지만 이제 검역검사본부는 사전예방을 위해 미리 준비하고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기관이 될 것이다.

수역사 처방문제, FTA 시대 검역검사문제 등 검역검사본부에는 중요한 이슈도 많고 풀어야 할 과제 많다. 우리는 앞으로 이 모든 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검역검사본부는 전문가들로 이뤄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기관이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우리는 전문적 지식을 총력으로 동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지성의 무기를 이용할 것이다. 이제 검역검사본부는 국민의 신뢰와 안심을 위해 24시간, 365일 발로 뛴 것이다.

안희경기자(nirvana@afnews.co.kr)  
농수축산신문/2011년 10월 17일



### 구제역 백신 내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서 생산 가능

내년 하반기부터는 구제역 백신의 국내 생산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의 구제역 백신 조달 로드맵에 따르면 현재 100% 수입으로 이뤄지고 있는 구제역 백신을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생산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역검사본부는 단기적으로는 외국 제조사에서 구제역 항원을 수입하고 백신 제조기술을 이전받아 국내에서 제조를 하는 형태로 백신을 생산하고 장기적으로는 순수 국내 기술로 구제역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역 백신 생산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검역검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구제역 백신 생산과 관련한 TF를 구성해 전문가 실사 등



실질적인 생산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며 “구제역 연구의 인력과 시설이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구제역 질병과 백신을 연구할 수 있는 구제역 연구소를 확대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제역 백신 생산을 희망하는 업체들 사이에 의견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국내 5개 백신 생산업체가 구제역 백신을 희망하고 있는데 외국제조사에서 이들 모두에게 기술이전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5개 업체가 모두 백신을 생산하는 것보다는 한 업체를 지정해 백신을 생산하는 형태 등 효율적인 생산형태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업체의 이해관계가 모두 달라 의견 조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안희경기자(nirvana@afnews.co.kr)  
농수축산신문/2011년 10월 17일



## 한국가축위생학회, 학술발표 대회 개최

한국가축위생학회가 대전 유성컨벤션웨딩홀에서 지난 6일과 7일 양일간 34차 학술발표대회를 열고 국내 최신 질병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전염병·임상분야, 미생물·병리 분야, 축산물·위생 분야, 포스터 발표 등 4부로 이틀에 나눠진 행된 이번 학술발표대회에서는 전국 각지의 질병전문가들이 총 출동해 지역현장의 상황을 소상히 보고,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구제역 백신 접종 후 유·사산체에 대한 조사(충청북도 축산위생연구소)나 인천지역 돼지 혈청형 A, C 로타바이러스 및 칼리시바이러스 감염증 실태조사(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등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염성 임상분야 발표에 이목이 집중됐다.

또한 미생물 병리분야에서는 환돈 유래 쥐티푸스균의 약제내성 및 유전형(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젓소에서 분리한 대장균 항생제 내성률 조사(충청남도 가축위생연구소), 닭에서 분리된 병원성 대장균 항생제 내성 양상 분석(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등 가축내 항생제나 약제 내성에 관한 발표들이 주를 이뤄 식품의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학회에 참석한 지역의 한 수의사는 “최근의 질병상황과 함께 국내 질병의 자세한 임상 등을 알 수 있었다”며 “가장 살아있고 빠른 정보를 접한 것 같아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안희경기자(nirvana@afnews.co.kr)  
농수축산신문/2011년 10월 10일